

“불국토만이 세상의 희망...”

룸비니 어린이 포교원 조선자 보살



조선자 보살은... 1941년 북한 청진에서 태어나 4살 때부터 경남 거제도에서 성장했고 1966년 경남 통영 풍화 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1967년 남편과 사별 후 부산 사상구 엄궁 초등학교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부산교사불자연합회 반야회에서 도반들과 수행 및 포교활동, 부산 문수사, 부산 한마음선원, 진주 해룡사에서 수행하며 공부했다. 이어 1999년 7월 룸비니 어린이 포교원을 개원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공로상 및 부산지구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부처님의 법은 어릴 때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세 계관이 결정 된 성인이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아이들은 스pon지처럼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불살생, 불투도 오계가 마음속에 자리 잡아 생활에 배인 아이들이 성장해 이 사회를 이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게요? 그런 점에서 어린이가 포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당이 단 한명의 어린이가 온다고 해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죠.”

조선자 보살(74)은 현직 교사시절부터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퇴직 즈음인 1999년 7월, 사비를 털어 어린이 법당 룸비니 포교원을 개원했다. 이후 16년 간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을 펼쳐온 조선자 보살을 6월 22일 부산 사하구 신평에 있는 룸비니 포교당에서 만났다. 문을 열고 반기는 조선자 보살의 해맑은 얼굴에는 천진함과 함께하며 평생을 살아온 그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남편의 죽음...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

초등학교 교사였던 조선자 보살이 부처님을 만난 것은 스물일곱 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다. 술에 취한 군인이 몰았던 군용 트럭이 남편이 타고 있던 버스를 덮쳤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중에 남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는 하늘을 원망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황망히 잃었던 20대의 조선자 보살의 팔에는 갓 돌이 된 아들이 안겨 있었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울기만 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어느날 텔레비전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됐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남편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불자가 아니었던 조 보살은 친척의 권유로 남편의 제사를 불교식으로 진행했다. 낯설었지만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던 중에 옆을 지나던 한 스님이 아들을 위해 매년 생일마다 방생을 해주라는 권유를 듣게 된다.

“당시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느 스님의 말씀을 듣고 불멸 방생 때 마다 집 앞에 있던 절을 찾아가었어요. 그리고 5년 후 본격적으로 절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무언가라도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절에 가야 할지 몰랐던 조선자 보살은 일단 방생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역을 무작정 찾았다. 무엇인지 모를 힘에 이끌린듯했다. 역 앞에는 방생을 가기 위해 준비된 버스들이 서 있었다.

“새벽 3시였어요. 부산역 앞에는 방생을 가기 위해 대절해 놓은 버스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함께 해도 되는지 물었죠. 담당자가 자리가 없으니 신문지를 깔고 앉아 가려면 같이 하라고 하더군요. 버스에 올랐죠. 그렇게 처음으로 문수사를 만나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찰이 되었습니다.”

그즈음 학교 도반이 반야회 활동을 권유했다. 여성 불교사들의 모임이었던 반야회는 당시 정기 수행 및 법회, 수련회를 열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어린이 포교를 위해 사단법인 동련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연꽃지에 글을 내는 등 문서 포교에도 동참했다. 이후 그는 15년 동안 동련 연꽃지에 글을 기고하며 연꽃 문화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상을 지도하기도 했다.

“교사인 제가 학교에서 불교색을 강하게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명상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턱을 당기고 허리를 펴고 앉는 등 수업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좋은 자세를 설명했죠.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자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불교 포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산만한 아이들을 지도하기에도 탁월한 방법이기도 했죠.”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사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절감
불교에 입문해 신도로 활동하던 중
교사모임 반야회서 문서포교 활동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 깨닫고

1999년 룸비니 포교당 개원
회비나 지원 없이 사비로 법당 운영
사경 명상 등 불교 포교 중심으로
영어·다도·여행 및 수련회
지역의 소외 아동 장학금 지원

어린이 포교 위해 명예 퇴직 선택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했던 조 보살은 1999년 7월 어린이만을 위한 룸비니 포교당을 개원했다. 도반들과 신행활동을 하던 조 보살이 이렇게 법당까지 개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당을 개원하던 시기가 아들이 고등학생 때였어요. 이미 성장해 자신의 생각이 이미 자리잡은 아들은 자기주장이 강해서 불법을 전해도 반응이 없더군요. 법당에 나오도록 권해도 들은 척도 안했어요. 아직도 절에 나가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죠.(웃음) 아들을 보면서 왜 어린 시절부터 불법을 만나야 하는지 절감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33년 동안 모신 시어머니 역시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어머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남편을 잃은 거지만 어머니를 잃었으니 심적 상처가 얼마나 컸어요? 평생 모시고자 다짐했죠. 하지만 아들을 잃은 어

머니는 마음의 병을 앓으셨고 78세가 되던 해에는 치매가 발병을 했어요.”

10년 동안 치매를 앓았던 시어머니의 병세는 심각했다. 학교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벽에는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대부분의 치매 어르신들이 그렇듯 시어머니도 음식을 많이 드시니 쉽게 장이 탈이 났는데 그러면 온 방에 실수를 했죠.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씻겨드렸어요.”

어머니 뒤통수가 너무 예뻐하며 무조건 칭찬을 했다는 조 보살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어머니를 부처님 대하듯 모셨어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는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께 경전 구절도 읽어드리고 했는데 역시나 잘 알아듣지는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해력이 좋은 젊은 시절에 불법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만 들뿐이었죠. 그랬다면 인간의 생로병사를 좀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아들의 죽음도, 자신의 죽음도 편안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88세의 나이로 삶을 마무리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머니를 보며 불교 공부에도 의지를 잃어버렸다.

어린이들에게 하루 빨리 불법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조금 이른 58 세에 명예퇴직을 준비하며 4층 건물을 매입해 1층은 임대를 주고 2층은 법당으로 3·4층은 가정집으로 꾸몄다. 그렇게 1999년 7월 룸비니 어린이 포교원을 개원하고 2000년 2월 초 학교를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어린이 포교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16년 동안 룸비니 법당을 운영해온 그는 단 한번도 회비를 받아 본적이 없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프로그램도 전문적이다. 영어 교사인 도반의 도움으로 매주 아이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다도 수업, 수련회,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활동을 펼쳤다. 지도 교사들은 대부분 퇴임 교사들로 어린이 포교에 마음을 함께하는 도반들이었으니 학부모들의 호응도 컸다. 또한 수업 후 제공되는 급식에서는 반드시 유기농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뭉치뭉치해도 룸비니 어린이포교원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명상과 사경이다.

“저학년 학생들에게 먼저 법화경 한글 독경을 시켜요. 반복해서 읽게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죠. 고학년이 되면 한자를 가르치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한자를 적절히 읽어내죠. 또한 사경을 하다보면 산만하던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배려심도 생기는 점도 장점이지요. 지난 봉축일에는 진주 해룡사에서 우리 법당 아이들이 법화경 자아계를 음악에 맞춰 울풍공연으로 선보여 대중들한테 큰 박수를 받았어요.”

전문화 된 지도교사들도 룸비니 포교원을 이끄는 공신이다. 법화경 강의를 담당하는 허은정 선생, 다도를 지도하는 장양수 선생님, 영어를 담당하는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완 1개월/60팩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산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어린이 포교는 내 평생의 소임



조선자 보살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사경을 통해 마음을 청정히 한다.



조선자 보살은 1999년 7월 룬비니 포교원을 개원했다. 사진은 개원 기념사진(제일 뒤 오른쪽 끝 조선자 보살)



진주 해룡사에서 진행한 2006년 여름수련회. 학생들과 함께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조선자 보살.

박정연 선생님 등은 모두 현직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재원들이다.

“모두가 교장, 교감까지 지낸 베테랑들이예요. 오랜 경험이 쌓인 교사들이라 보니 어떤 아이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죠. 다도 수업을 통해 예절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간화선과 명상도 지도해요. 또한 수업 후 공양 시간에는 모두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며 식사 예절을 익혀요. 특히 식사 전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공양계를 외워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불교 경전을 영어로 번역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한다. “영어를 담당하는 박정연 선생님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영어로 해석해 연극대본을 직접 작성했어요. 아이들을 지도하며 영어와 함께 불교를 익히도록 지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교원을 찾은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초창기에는 보통 30명 정도가 왔는데 요즘에는 10여 명으로 줄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학원에도 가야하고 숙제도 해야 하니, 법회를 하는 토요일의 세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심이 있는 어머니들은 법회가 우선인데 대부분은 우선 순위가 학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은 너무 많은데 다해줄 수 없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 꿈은 ‘세계 불국토 통일’

이렇게 법당을 개원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포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에너지를 조선자 보살은 수행에서 찾았다. 그는 법당 개원 이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예불을 진행했다. 하루에 3시간씩 법화경을 사경하며 법의 참 뜻을 알게 됐다는 조 보살은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삶은 수행의 기본이라고 했다.

“예불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공부, 건강, 포교 등을 기원하며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오신채를 먹지 않으니 법당에 오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계율을 지키게 됩니다. 선생이 먼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죠.”

“아이들이 많이 떠돌고 하니 지역에서 나무라거나 싫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웃에서도 서로 인사하고 지켜봐 줘요.”

이렇게 룬비니 포교당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은 숨은 나눔이 한 몫을 했다. 지역의 학생들 가운데 매년 부모가 없는 학생 두 명을 선정해 매달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연등과 떡을 지역민들에게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눈다. “연등을 만드는 것은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죠. 혼자서 연등

을 제작하니 많이 만들지는 못하는데 100여개 정도 만들어 떡과 함께 돌리며 축하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법당을 찾는 아이들 중 환경이 열악하거나 지역 동사무소에 추천한 어려운 아동들을 찾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 찾아오면 흐뭇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뭐냐는 질문에 조선자 보살은 ‘세계 불국토 통일’이라며 웃었다.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다. “부처님 법을 알면 전쟁도 없어요. 생명 중심으로 남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자살할 일도 없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포교입니다.”

학원 때문에 포교원을 찾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매년 전단지 제작해 알려 나가고 있다는 조선자 보살. 오늘 인터뷰도 포교를 위해 용기를 냈다고 강조한다. “많은 어린이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지요. 살아있는 동안 단 한명의 어린이가 온다고 해도 법회를 진행 할 것입니다. 어린이 포교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죠.”

삶의 대부분을 어린이 포교에 바쳐온 노보살은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 아이들이 맞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불국토를 꿈꾸는 그의 삶은 더 풍요로웠고 더 행복해 보였다.

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파릇파릇한 불교의 과일나무를 위해

큰 절 법당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겠지만 불교의 노령화는 그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새로 심어지는 청년나무 없이 노령화된 나무만 가득 차 있는 과수원의 미래는 파산뿐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역시 심상치 않다.

10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로 분류되는 출판 빙하기에 200만 이상의 독자에게 선택받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헤민 스님이 등장했다. 40대 초반의 스님이 이렇게 불교의 테두리를 넘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한국불교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사건이다.

또한 온라인 세상에 접속하는 판문인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남녀노소 누구에

노냈는데 반응이 의외였다.

“스님, 책 내셔도 흥분해요. 내보세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전법의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당위성에 매력을 느꼈고, 결국 스스로를 설득해서 출판을 결심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심한 그날 저녁 페이스북에서 메시지 하나가 왔는데, 출판사였다.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써 내리던 글들을 에세이로 묶어서 출판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바로 연구소로 달려온 편집장의 정성에 못 이기는 척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몇 개월 뒤 교보문고 강연장에서 작가라는 타이틀로 대중들과 만나 강연과 사인회를 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쾌속하게 연결되는 인연들을 바라보며, ‘마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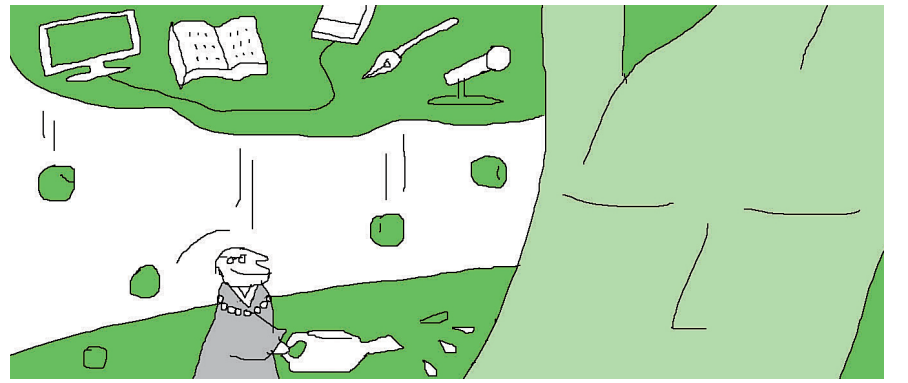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거나 있을 법한 삶의 고민을 질문하고 답을 듣는 법은 스님의 즉문즉설 동영상에 소개되어 있다. 이 사이트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법문 스님의 입을 통해 표현되는 부처님의 금구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청년들이 청중의 중심이라는 점과 새로운 전법의 방식인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온라인과 청년 그리고 한국불교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스님, 청년들을 위해 책을 내보시는 게 어떠세요?”

“교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책을 냈습니까?”

군중장교 제대 몇 개월을 남겨둔 2012년 말경에 석사논문 검토를 위해 만난 지도교수에게 황당한 조언을 받았다.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책을 내라니... 글쓰기라는 분야에 학창시절부터 재능도 없었고, 싫어하는 분야였기에 단 한 번도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마음에는 ‘작가는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지도교수의 조언이기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스티디 시간에 도반들에게 이 상황을 의

나를 일으키고, ‘안된다’는 부정의 생각을 듣는 법은 스님의 즉문즉설 동영상에 소개되어 있다. 이 사이트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법문 스님의 입을 통해 표현되는 부처님의 금구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부처님은 45년간 매일 아침 재가불자의 마을로 탁발을 나가셨다. 그곳에서 재가불자의 공양을 받고, 그들을 위해 축원하시고 설법하셨다. 즉, 전법대상이 모여 있는 ‘광장’으로 한걸음 먼저 다가간 것이다. 현재의 한국불교는 분명히 노령화되었다. 도대체 청년들은 왜 불교를 배우지 않는 것일까? 그들에게 불교가 필요 없을까? 아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 먼저 다가서는 전법 주체가 없었을 뿐이다. 청년들이 큰 절 법당에서 실종되었다고 불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책 속에서, 헤민 스님의 불교, 법문 스님의 불교, 수많은 스님들의 불교를 엿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광장으로 탁발을 나가 그들의 손을 잡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진리로 살짝만 닿아주어도 한국불교의 토양에 파릇파릇한 과일나무가 심어질 수 있지 않을까?



헤민 스님(행복문화연구소 소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정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동소 KW-BS200

“전통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재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합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종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제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날날이 설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